

# ‘섬 명소화’ 신안, 자랑스러운 섬 만들기 청사진 제시

## ‘남이 가지 않은 길’ 모토...지역소멸·정주여건 개선 교통 확충·아열대 작물 원예산업·문화예술 육성 주력

신안군이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계획으로 섬 명소화를 추진하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섬 만들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은 1969년 창군 이래 인구가 지속 감소, 2022년에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신안군은 ‘남이 가지 않은 길’

을 모토로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 ▲소득과 먹거리가 풍족한 섬을 균형 길잡이로 삼아 지난해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신안군은 먼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전체 구역이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곧 주민 숙원이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흑산공항 건설 사업’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추모관 건립’ 등 흑산권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장산-자라 간 연도교(2029년) ▲추포-비금 간 연륙교(2030년) ▲압해-화원 간 도로(2027년) 등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연결망을 건설하는 한편, 섬 내 교통 원활화를 위해 ▲압대 수곡-신석 도로 개량 ▲압해 신장-복룡 도로 개량 ▲압해 송공-동서 도로 개량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농수산업의 틀을 깨고 새로운 농수산업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지도읍에 들어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새우, 개제굴 등 첨단 양식산업이 신안군에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화된 전통 농업의 소득성을 보완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 원예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섬 바나나 농장과 스마트팜을 조성하며 청년 농부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팔금 스마트시설원예단지, 도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2월 설립된 ‘신안군 바나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더욱 풍성(enrichment)하게 가꿔지고 있다.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사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뮤지엄과 정원 외에도 다른 볼거리, 먹거리를 활용한 문화관광 사업이 추진된다.

추포도에는 신안의 섬 먹거리를 바탕으로 음식관광테마 명소를 조성할 예정(2027년)이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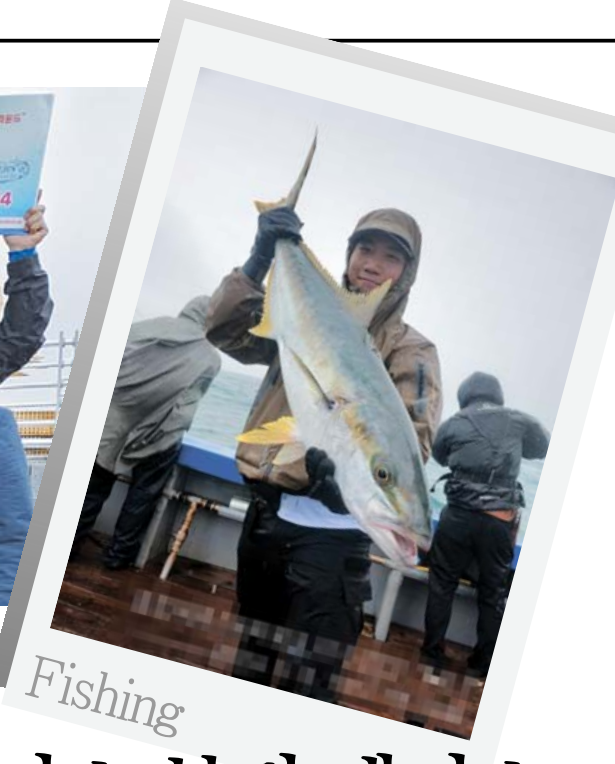
한국 최초의 그래피티 타운(압해읍 위대한 낙사마을)을 목표로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들이 참여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아울러 그동안 개발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남부권역에 3년간 300억원을 투입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DJ를 상징하는 큰바 위열굴 명소화 사업 등 하·신의·장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서·남부권역의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안=양훈 기자



강진군은 오는 8월10일 시마노킵 두족류 선상낚시대회 예선전 시리즈1을 시작으로 총 10회 피싱마스터스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시범라운드 피싱 시상식. <강진군 제공>



## 완도군,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준비 ‘착착’

### 체육대회 홍보·정보 제공 공식 홈페이지 개설

완도군이 10월 열리는 ‘제36회 전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제36회 전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완도 공설운동장 등 24곳 경기장에서 열리며,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24개 종목에 2만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 첫 화면은 국내 최초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와 대축전 슬로건인 ‘치유의 섬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을 부각해 디자인됐다.

홈페이지는 ▲대회 소개(개요, 경기장 안내 등) ▲행사 정보(개·폐회식 등) ▲대회 정보(경기 종목, 일정 등) ▲개최지 안내(완도 관광 해양치유 등) ▲알림 마당(공지사항, 이벤트) 등

5개 메뉴로 구성됐다.

각각의 메뉴를 통해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관광, 음식, 숙박, 해양치유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회 기간에는 종목별 대진표, 경기 결과, 사진, 홍보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게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으로 제작돼 손쉽게 볼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설군 이래 최초로 군에서 전남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이번 대축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전남도민이 화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강태공 모여라”...강진 피싱 마스터스 본격 레이스

## 감성돔·두족류 분야 나눠 참가신청 접수 행운권 추첨 등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도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8월10일 시마노킵 두족류 선상낚시대회 예선전 시리즈1, 8월12일 해마요팅킹 감성돔 선상낚시대회 예선전 시리즈1을 시작으로 총 10회 대회를 개최한다.

감성돔 낚시대회는 지난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으며 두족류 낚시대회는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되며 감성돔은 150명까지, 두족류는 300명까지 접

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감성돔은 15만원, 두족류는 12만원으로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받으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참가비 입금에 따라 접수가 확정된다.

대회 순위는 무게 계측으로 가장 많은 무게를 잡은 순서로 결정되며 동일한 무게일 때는 1순위는 길이, 2순위는 참가 접수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예선시리즈 참가자 전원 대회 모자를 지급하며 우승자에게는 시상금 200

만원, 2등 100만원, 3등 70만원, 4등 50만원, 5등 3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9월에 한 차례 더 예선전 시리즈 2를 개최하며 예선 시리즈의 상위 50%를 대상으로 본선을 치른다. 본선 1등 우승자에게는 감성돔은 3천만원, 두족류는 1천500만원, 빅게임 1천만원 상금을 지급하며 2-50등에게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책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회기간 동안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당 일원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한 강진 수산물 경

품 지급, 시상금 일부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행사장 농수산물 판매부스 운영 등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행사기간 중 함께 실시된다. 강진사랑상품권 최대 환급금은 5만원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대회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준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바다낚시 관련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더욱 부흥시키겠다”며 “낚시 동호회, 친구, 가족들 모두 이번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에 접수 신청 바라고 강진에 방문해 활어처럼 활기찬 여름 바캉스를 제대로 즐겨달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무안 대죽도 근린공원에 1.1km 마사토 어싱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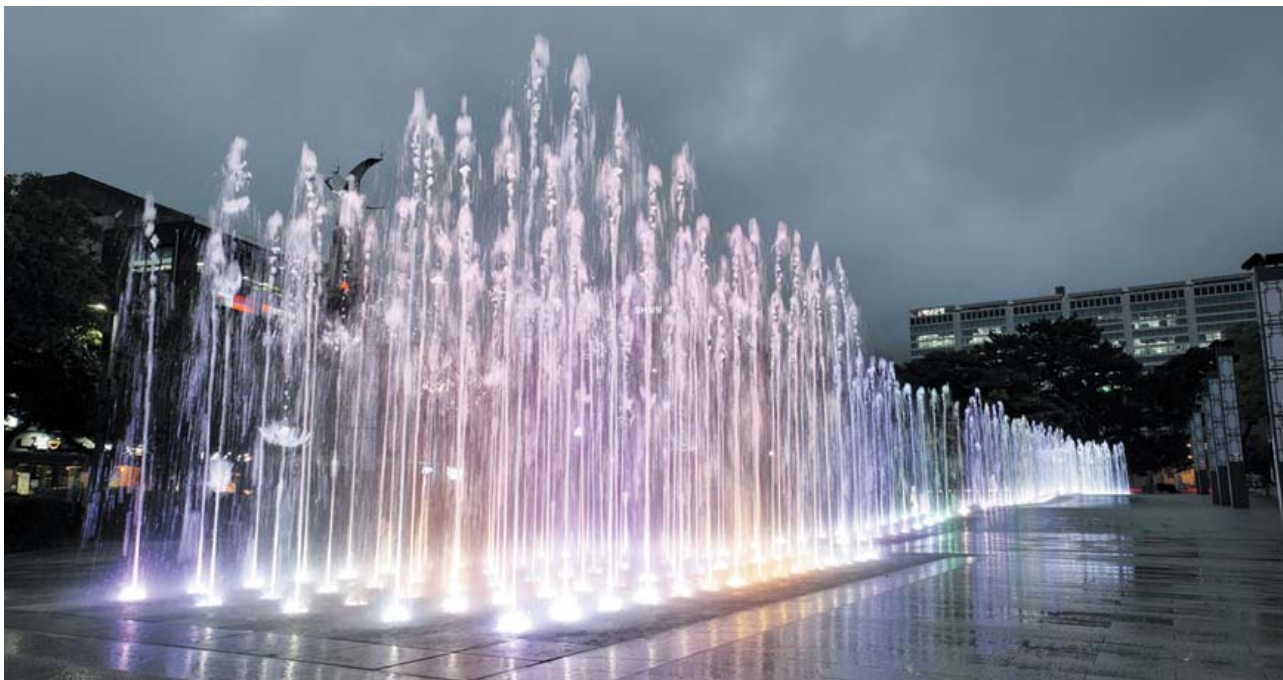
무안군은 “최근 대죽도 근린공원 산책로에 주민 건강과 행복지수 증진을 위한 어싱길을 준공·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싱(Earthing)은 ‘땅’(Earth)과 ‘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은 길이 1.1km, 폭 1.9m의 마사토 포장길로 조성됐으며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한 경관배수로 위를 지나가는 목교에는 인조 잔디를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해남군은 최근 근민광장 원형분수대를 철거하고 65m 길이의 분수시설을 확장하며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근민광장 음악분수 개통

### 주간 어린이 물놀이터·야간 음악분수 운영

해남군이 근민광장에 음악분수를 새롭게 조성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근민광장에 위치한 원형분수대를 철거하고, 근민 친화형 열린공간으로 총 65m 길이의 분수시설을 확장하며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근민광장 분수시설은 주간에는 바다

적인 야간 불거리를 제공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악분수는 오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정식 개통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음악분수가 개통되면서 근민광장이 군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여름철 더위에 지친 군민들이 피로를 날리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휴식처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고사리 손 온정으로 나눔·희망 전해요

### 목포도담어린이집, 하당동에 바자회 수익금 기부

목포도담어린이집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각지 나눔 바자회’ 수익금 20만원을 하당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원아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경제활동을 배우는 ‘공각지 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원아들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판매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했다.

안순자 도담어린이집 원장은 “바자회를 통해 아이들이 경제활동 체험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뜻 깊은 행사였다”며 “이번 경험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미 하당동장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마련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수익금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하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 복지회를 통해 아이들이 경제활동 체험과

## 함평군, 청년 창업 리모델링 대상자 모집

### 내일까지...빈집 등 개조비용 지원

함평군은 16일 “오는 18일까지 청년 창업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청년스트리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빈집 등 지역 유휴시설을 새로운 창업 공간으로 개조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22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함평 관내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미만의

청년으로, 함평군민 또는 사업 시작 후 3개월 이내 거주하는 예비 함평군민이 면·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함평군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면접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 대해 1년간 ▲지역산권 분석 ▲지역 인증 개발 및 발굴 대상 펀딩 지원 ▲지역로컬업 공간으로 개조해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김연수 기자